

# AI 시대의 번역 교육 -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자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송연석(한국의국어대학교)

## 1. 서론

번역학계 및 번역 교육계에서 번역사라는 직업의 미래에 대해 처음으로 집단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던 때는 아마 2016년 구글 신경망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 발표된 후였을 것이다. 언론은 연일 기계번역(MT)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 담론을 잠재우려 ‘인간 대 인공지능(AI) 번역 대결’(윤동지, 연합뉴스, 2017.2.21.)이 개최되기까지 했다. 실제로 이전까지만 해도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구글 번역이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줬고 한국어 구어체 데이터를 강점으로 내세운 파파고도 이용량이 대폭 늘어나는 등(김주완, 한국경제, 2019.4.23.) MT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계기가 됐던 사건이다. 두 번째로 집단적 위기의식을 촉발한 사건은 2023년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일 것이다. 기존 NMT 대비 번역 품질이 월등히 높아져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간 NMT를 무시했던 학생들은 물론 실무자와 교수자, 연구자들도 챗GPT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으며(박수정과 최은실, 2023; 신지선, 2024; 이선화, 2023; 이아형, 2023; 이창수, 2024; 지윤주 등, 2023) 딥엘(DeepL)처럼 성능이 훨씬 향상된

\* 이 연구는 2024년 한국의국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MT 엔진도 등장했다. 이제는 번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고(이해인, 조선일보, 2023.11.27.) 허술하다고 외면 당하던 MT가 활용도 높은 유용한 도구로 인식도 바뀌고 있다. MT가 인간 번역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번역의 종류도 자동 MT와 전통적인 인간 번역의 양극단 안에 다양한 수준의 포스트에디팅(MTPE)이 스펙트럼으로 분포하는 식으로 재편되고 요율로는 저가 시장과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번역에서 AI 활용은 암묵적 기정 사실이 되었고, 2016년 NMT 등장을 기점으로 MTPE라는 새로운 담론이 대두됐다면 이제는 AI와의 공생을 전제로 ‘어차피 써야 하면 제대로 알고 쓰자’는 MT 리터러시(literacy)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이영훈, 2024; 최지영, 2024; Alm & Watanabe, 2022; Bowker, 2020; Bowker & Buitrago-Ciro, 2019; Krüger, 2022; Krüger & Hackenbuchner, 2022; O’Brien & Ehrensberger-Dow, 2020).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당장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전문번역사를 배출해야 하는 통번역대학원(이하 ‘통대’)의 번역 교수자들은 교육과 실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들이 생각하는 번역 능력은 무엇이고 수업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MTPE와 MT 리터러시를 비롯해 통대 번역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국내 번역학계에서 교육의 3요소 중 학습자와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교육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인 교수가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번역 능력 적용에 관한 학부 번역 교수의 인식을 조사한 강수정(2015),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수자 관점을 연구한 이지은(2016)과 송연석(2020), 박사과정생 지도에 대한 교수자 관점을 연구한 이지은과 송연석(2022)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통대의 번역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AI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실무와 교육 전반에 대한 교수자들의 관점을 조명하고 그 결과가 통대 번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번역 교육과 번역 능력

#### 2.1.1 AI 이전의 번역 능력 모델

번역 교육은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일차적으로는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번역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관점이 존재해 왔고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도 없다(이항, 2006). 단순한 이중 언어 능력으로 간주하던 초기의 언어학적 관점(Harris, 1977)을 벗어난 이후에도 “번역 수행을 위해 번역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Bell, 1991, p. 43), “번역에 요구되는 기저의 지식 시스템”(PACTE Group, 2009, p. 208)처럼 두루뭉술한 정의부터, 의도적인 인지적 노력을 통해 지식이 전문성으로 발전한다는 인지심리학적 관점(Shreve, 2006), 텍스트의 생산, 수용, 분석, 평가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언어학적 관점(Nord, 1992) 등 다양한 인접 학문의 관점에서 번역 능력이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번역 교육에 이런 정의가 직접적 효용은 없기에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규명해 모델을 만들고 이를 번역 교육에 연계하려는 방향으로 번역 모델 연구들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연구가 PACTE 그룹의 번역 능력 모델(2003)로, (1) 이중언어능력 (2) 언어 외적 능력 (3) 도구적 능력 (4) 번역에 대한 지식 (5) 전략적 능력 (6) 심리·생리적 요소의 6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PACTE의 모델을 토대로 한 Göpferich(2009)의 번역 능력 모델은 6가지 하위 능력(2개 이상 언어로의 소통 능력, 주제 분야 전문 지식, 도구 및 리서치 능력, 번역 루틴 활성화 능력, 심리·운동 능력, 전략적 능력)에 3가지 요소(번역 규범, 번역사의 자아개념 및 직업윤리, 심리·생리적 성향)를 추가해 PACTE 모델보다 좀 더 복잡하다.

#### 2.1.2 AI 이후의 번역 능력 모델

통대는 실무 지향의 석사과정이므로 위의 모델들보다는 석사과정에 특화된 EMT(European Master's in Translation, 유럽 번역학 석사과정) 번역 능

력 모델(EMT Board, 2022)이 더 유용한 비교대상일 수 있다. EMT모델은 (1) 언어 및 문화 (2) 번역 (3) 기술 (4) 개인적·대인적 기술 (5) 서비스 제공 능력 등 5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어 및 문화’는 PACTE의 이중 언어 능력과 언어 외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번역’은 전략적 능력과 Göpferich의 번역 루틴 활성화 능력, 주제 분야 전문지식을 포괄하며, ‘기술’은 도구적 능력에 해당된다. ‘개인적·대인적 기술’은 심리·생리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이고 ‘서비스 제공 능력’은 번역에 대한 지식, 번역 규범, 번역사의 자아개념 및 직업윤리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모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한 가지 특징은 하위 능력인 ‘번역’에 ‘감수’와 ‘MTPE’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2009년에 처음 발표된 뒤 2017년 개정과 2022년 업데이트를 거친 뒤 2023년부터 2028년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어 생성형 AI로 인한 최근 변화가 반영된 모델은 아니다. 하지만 “학계는 실무 현장의 최신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AI와 MT가 실무와 번역 능력의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모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Ramos, 2024, p. 149)는 관점에서는 진일보한 모델이라 볼 수 있고, 특히 MT를 상정한 각종 툴 사용 능력 및 MT 관련 리터러시를 포함하고 있어 AI 시대 번역 교육에의 적용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 2.2. 번역 교육과 기계 번역

### 2.2.1 기계 번역 포스트에디팅

NMT의 뚜렷한 한계로 MTPE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번역 교육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MTPE로 이동했다. 초기에는 MTPE의 가능성과 한계 등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나 분석이 많았고(곽중철과 한승희, 2018; 마승혜, 2018; 마승혜와 성승은, 2019; 이준호, 2018; 이상빈, 2017, 2018), 점차 번역 교육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세분화되어, 생산성(김자경, 2022; 이준호, 2021; 이준호와 김순미, 2022), 텍스트 유형이나 분야별 적용(김자경, 2021; 이지은과 최효은, 2024; 정재혁, 2024), 언어별 MTPE 가이드라인(김순미 등, 2019; 김혜림, 2024; 박건영, 2021; 윤미선 등, 2018; 이주리아, 2019; 한현희, 2019), MTPE에 대한 태도 및 인식(김순미, 2021; 이주리아, 2021; 이지민, 2023) 등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최근에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의 연구들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Briva-Iglesias 등(2023)은 고정된 NMT 결과물을 수정하는 기존 MTPE와 직접 번역을 하다가 자동으로 제시되는 기계 번역 대안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 MTPE를 비교한 실험에서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상호작용적 MTPE 선호도가 더 높았고 속도도 더 빨랐으며 기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Girletti와 Lefer(2024)는 MTPE 교육에서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효율 산정법을 단어당, 시간당, 투입 노력당 효율로 나누어 실험하고 학생 간, 방법 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 2.2.2 MT 대 인간 번역의 이분법

다양한 MTPE 연구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 기저에 깔린 인간 번역 대 MT라는 이분법적 구도다. MTPE의 목적 자체가 MT의 단점을 보완해 인간 번역처럼 자연스러운 번역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만큼 이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실제로 MT와 인간 번역을 비교하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이선우와 이상빈, 2021; 이지은과 최효은, 2024; 정재혁, 2023; 한승희와 강동희, 2022), MT 답론은 늘 인간 번역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가 그 핵심이다. 유럽의 경우 MTPE 외에도 인간에 의한 감수가 EMT모델에 포함되면서 감수 능력 모델(Robert et al., 2017)과 감수 교육에 대한 연구(Riondel, 2024; Robert et al., 2017, 2024)도 함께 이뤄지는 등 역시 이분법적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실험 도구만 NMT에서 챗GPT로 바뀌었을 뿐, 이 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아마도 다른 신기술이 등장하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Rozmysłowicz(2024)는 번역학이 MT를 프리/포스트에디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거나 인간 주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초양극화(great divide)’를 초래해 왔으며(p. 495) 이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번역학의 성찰을 촉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O’Brien(2024)도 기계가 인간을 모방하고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인간 중심의 AI(HCAI, Human-centered AI)’(Shneiderman, 2020) 개념을 차용해, 인간 번역과 MT라는 적대적 이분법 대신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

하고 권한을 강화해주는(empowering) 인간 중심의 ‘증강 번역(augmented translation)’을 제안하는 등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 2.2.3 MT 리터러시

이분법 구도로 놓치기 쉬운 또 한 가지 측면은 시장을 좌우하는 최종사용자의 관점이다. 챗GPT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번역물을 산출해냈다면 MT인가 인간 번역인가? 최종사용자로서는 원하는 결과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결과물이 제 기능만 할 수 있다면, 그 구분이나 과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사용자 관점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Ragni & Vieira, 2022) 지금까지 대부분 번역자 입장으로 기울기 쉬운 번역학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실무 지향적인 통대 교육에서는 실무 상황을 상정해 교수가 최종사용자 역할을 맡을 때도 많지만 교수자 관점에 대한 연구도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 MTPE가 MT 결과물에 수정을 가하는 작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고정성이 내포되어 있었다면 챗GPT는 원하는 대로 번역물 재생성(regenerate)이 가능하고 표현의 뉘앙스나 용법 확인, 리서치 시간 단축 등 프롬프트 활용력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결과물이 산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유연성이 장점이다. 그러나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AI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유연성이 비로소 장점이 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MT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는 번역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진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육이나 교육기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owker & Buitrago-Ciro, 2019; Groves & Mundt, 2021). 이런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MT 리터러시다. MT 리터러시는 Bowker와 Buitrago-Ciro(2019)가 처음 제시한 용어로, O'Brien과 Ehrensberger-Dow(2020, p.146)는 MT 리터러시를 “MT의 원리, 특정 맥락에서의 유용성, MT 사용이 구체적인 소통 니즈에 갖는 함의를 아는 것”으로 정의한다. Krüger(2022)는 학부와 석사생 대상 기계 번역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 확장해 기술적(MT 기술 관련), 언어적(언어 품질 관련), 경제적(요율, 생산성 등), 사회적(MT가 번역사의 역할/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윤리 등), 인지적(번역 과정의 인지적 측면) MT 리터러시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 전문적인 MT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고정성이 특징인 NM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챗GPT 이후의 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기계 사용이라는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기본 개념과 틀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런 개념이 다뤄지고 있는지, 교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3. 연구 방법

면접조사는 서울 소재 한 통대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번역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 8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 사이에 Zoom을 이용한 개별 화상면접으로 실시했다. 사전에 질문지를 제공한 다음, 면접조사 도중에 필요 시 추가 질문을 하는 형식의 반구조화 심층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1인당 소요시간은 50분~1시간 45분이었다. 일반화나 정량분석이 목적이 아닌 소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인 만큼 최대한 다각도에서 교수자들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 과목의 언어 방향을 영한번역 4명, 한영번역 4명으로 같은 비율로 맞추고 실무 및 강의 분야도 산업/경제, 정치/법률, 과학/기술, 사회/문화로 다양하게 조합했으며 인하우스 번역사 2명과 번역학 연구자 2명도 포함시켰다. 챗GPT 등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강의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인 교수자로 구성했고, 번역 교육에서 MT 및 MTPE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구글 NMT 등장 이전의 강의 경험이 있는 4명과 그 이후부터 강의한 4명으로 역시 비율을 맞췄다. 참가자들의 강의 경력은 4-20년으로 평균 10.5년이었고 번역 실무 경력은 8~25년으로 평균 16년 이상이었으며 3명은 타 통대나 학부에서도 강의를 한 경험이 있었다. 2명(한->영) 외에는 모두 실무에서 영->한, 한->영 양방향으로 번역을 하고 있었다. 참가자가 소수라 그 밖의 개인 정보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밝히지 않기로 한다.

질문지는 참가자 기본 정보 외에도 실무 지향적인 통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에 대한 질문과 번역 교육 관련 질문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누어 구성했다(표 1). 번역 교육 질문 중 번역 능력 모델의 경우 각 교수자 개인이 생각하는 번역 능력의 정의를 먼저 들어본 다음, 학문적 배경지식이 없는 교수자들에게는 2장에서 살펴본 번역 능력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이중 언어 능력, 언어 외적 능력/도메인 지식, 도구적 능력, 전략적 능력, 개인/대인적 기술, 서비스 제공 능력)들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를 줌 화면에 띄우고 말로 설명한 뒤 의견을 물었다.

표 1  
질문지 구성

참가자 기본 정보	연령대, 번역 경력, 강의 경력, 주요 번역 분야, 번역 방향, 담당 과목의 번역 방향
번역 실무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실무 시 MT 사용 여부 MTPE 수주 여부 번역업계 향후 전망
번역 교육	AI 번역 등장 이후 수업에서 체감하는 변화 학생들의 AI 번역 사용에 대한 생각 MT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생각 MTPE 교육 및 감수 능력 개발에 대한 생각 참가자가 생각하는 번역 교육의 목표와 번역 능력의 정의 기존 번역 능력 모델에 대한 의견 번역 수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 번역 교육에 필요한 변화

면접조사는 거의 매회 1시간이 넘는 길고 밀도 높은 대화였고 내용이 많아 클로바노트를 이용해 전사했다. 줌 녹화본에서 오디오를 추출해 1차로 클로바노트로 전사한 뒤 전체적으로 읽어 보며 오류가 있는 부분은 오디오 원본을 확인해 수정한 뒤 질문 항목별로 핵심 내용과 키워드를 엑셀표에 요약해 정리했다.



## 4. 분석 결과

내용이 많아 4장에서는 항목별 주요 결과를 소개한 뒤 그 함의를 5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4.1 번역 실무 현황과 전망

#### 4.1.1 실무에서 체감하는 변화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번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은 ‘일이 어려워졌다’, ‘쉬운 일이 안 들어온다’였다. 올해 일이 부족 줄었다고 답변한 교수자도 2명(#1, #3)이었다.

작년서부터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정부기관 일이 짝 줄었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내부적으로 기계번역 돌려서 처리를 하고 장관님 언론사 기고문이나 해외 장관한테 보내는 서신 그런 걸 부탁하는 거 같고 회의 자료나 발표 자료 같은 건 내부적으로 하나 싶어요. (#3)

옛날에는 어려운 거 하루 했으면 그 다음날은 쉬운 것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쉬운 게 없이 항상 어려운 것만 하는 거죠. (#7)

#### 4.1.2 실무에서의 MT 사용

교수자 8명 중 2명은 면접조사 시점에는 실무를 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실무에서 MT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사용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프리랜서 4명은 시간 절약을 위한 리서치 및 영어 원문의 의미 확인용으로 사용할 뿐 번역 자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인하우스 번역사는 2명 모두 회사 차원에서 딥엘을 도입해 실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라는 지침 때문에 압박을 느낀다’(교수자 #2), ‘급한데 기계 쓰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냐며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이진 않아도 빨리 해줄 걸 기대하니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져 사용한다’(#7)는 것이다.

MTPE를 의뢰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1, #3, #4, #5),

‘의뢰는 들어오지만 거절한다’(#4, #6, #8), ‘오히려 기계를 쓰지 말라는 계약서를 쓰고 일했다’(#1) 등 대체로 의뢰 자체가 적거나 들어와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하는 이유는 효율(#8) 외에도 ‘자괴감을 느낄 것 같고 보람이 없을 것 같다’(#4), ‘그런 텍스트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6) 등이었다. 또한 ‘통대가 활동하는 시장 자체가 MT가 아직 침범을 못한 상황인 것 같다’(#6), ‘챗GPT를 아예 차단하고 자체 AI를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협력사에도 공유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1)는 답변도 있었는데, 비록 ‘자율이지만 MT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분위기’(#2, #6)라거나 ‘(번역회사에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100% MTPE를 돌린다’(#5)고 답한 참가자도 있는 등 실무에서의 MT 사용은 아직은 일관된 패턴 없이 혼재된 양상이었다.

#### 4.1.3 번역업계 향후 전망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번역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프리미엄 시장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1, #4, #6, #7, #8). 그러나 ‘프리미엄 시장 빼놓고는 다 몰락할 것 같다’(#6), ‘총 수요는 어쨌든 줄어들 것 같다’(#7), ‘앞으론 다 MTPE로 갈 것 같다’(#5), ‘고용 안정이 걱정된다’(#2), ‘창의력 없는 인간보다 (기계가) 오히려 잘하는 걸 보면서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3) 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이 한국말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은 (MT로) 품질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압축해서 ‘맞’을 썼는데 이 ‘맞’이 연결하는 and가 뭔지, 경력이 이렇게 되는 저도 이 사람은 이 ‘맞’을 여기서 뭐랑 뭐를 연결하고 싶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밀을 절대로 거기에 올릴 수 없고.. (#1)

전문 분야나 소위 ‘garbage in, garbage out’ 그런 경우엔 기계의 실수가 더 있지 않을까... 문화적인 건 사람 능력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4)

번역은 아니더라도 포스트에디팅이나 퀄리티 컨트롤이나 스타일 관리라든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통대 나와서 전문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루트가 평

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6)

솔직히 앞으로 5년은 그냥 잘 먹고 살 것 같은데 15년 후는 뭐 할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3)

번역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돌리면 뭐든 나오고 그게 막 버릴 정도가 아니잖아요. 통대 교육에 좀 위기가 지 않을까 싶어요. (#5)

## 4.2 번역 교육 현황과 전망

### 4.2.1 번역 수업에서 체감하는 변화

학생들이 챗GPT로 충분한 실험을 해봤을 2024년 1학기 수업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하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학생들이 MT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틀리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고 공통적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떠올렸지?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잘못된 단어인데... 그런 게 아무래도 기계번역을 돌려서 그런 게 아닌가 (#3)

수업하면서 물어보는데 AI 안 쓴다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학생들마다 되게 천차만별인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한 3명 정도가 비슷한 표현이 막 나오거나 하면 이거 (MT) 돌려서 에디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저는 많이 하거든요. (#5)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에 비해 오역이 줄었지만 특출한 학생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의미 파악력이 떨어진다’(#1), ‘공부량이 부족한 느낌’(#2), ‘퀄리티가 중간으로 수렴하다는 것 같다’(#7)는 것인데 이것이 MT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살아남을 번역사 후보군이 줄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게 챗GPT나 딥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역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리서치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돼요, 학생들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신기한 게 예전에 구글 번역이 나오고 그 초기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번역 텍스트가 비즈니스 텍스트였거든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들. 근데 지금은 이게 제일 쉽게 나와요. (#1)

반에서 에이스가 없어진 느낌을 받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 학기에 A+를 안 줬거든요... 말하자면 정규분포에서 약간 상위 바깥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이 몇 명은 있을 수 있는데 개네들마저 AI를 사용하는 걸 초장부터 습관을 들이면 개네들이 정말 뛰어나게 할 수도 있는 애들이네 정규분포 안으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7)

예전에는 확실히 한 반에서 95점, 96점까지도 줄 수 있는 학생이 항상 1~2명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를 95를 줘야 되나? 한 명도 없어요... 일단 둘러보고 거기에 본인의 걸 조금 가감하다보면 사실은 기계번역이 만 들어준 문장 틀에 갇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8)

#### 4.2.2 학생들의 AI번역 사용에 대한 입장

학생들의 AI번역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고력을 키울 기회가 줄어드니 과제에 쓰는 건 반대합니다. 기계가 못하는 10%를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통대 2년이 그 능력을 키울 마지막 기회죠. 기계 번역은 나가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2)

번역회사에서 고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항의하는데 자기네가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글을 읽었을 때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걸 왜 ‘아니다’라고 고객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서로 말로 표현하거나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한 건데 그런 걸 배우는 게 대학원 수업이잖아요. 그런 애매한 걸 여러 가지로 변형했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죠. 굳이 크리티컬해가면서 장단점 설명하는 게 사실 학생한테나 선생님한테나 되게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걸 AI로 하면 많이 손실이 되니까. (#5)

접근법은 조금씩 달랐다. 학생들에게 ‘리서치 보조 도구로는 써도 되는데 번역은 직접 해라, 과제가 AI 돌린 거라고 생각되면 바로 감점 들어간다고 경고한다’(#6), ‘첫 수업에서 우리는 인간 번역을 전제로 한다고 아예 딱 못을 박는다’(#7), ‘MT 돌렸다는 티가 나는 순간 0점 처리한다고 얘기한

다’(#8)처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미 돌려봤다는 걸 알려주고 압박감도 주기 위해서 아예 챗GPT 돌린 결과물을 같이 보여주고 비교하면서 너네 이것보다는 나아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해준다’(#1), ‘기계 돌려져한테 A+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썼으면 좋겠지만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3)처럼 자율에 맡기는 등 차이가 있었다.

#### 4.2.3 MTPE와 MT 리터러시 교육

MTPE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1주 정도 공통 과목이나 특강에서 다루면 될 것 같다’(#6, #8) 외에 ‘번역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MT 리터러시 교육도 대체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첫째는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밀 서약에서 어긋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챗GPT가 아직까진 다 맞진 않는다. 세 번째는 고객들도 돌려본다. 돌려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정말 속된 말로 돈값은 해야 한다. 효율에 따라선 돌려서 내가 어느 정도 손을 봐도 된다, 내가 효율이 정말 비싸서 차별화를 뒤야 한다면 처음부터 (인간 번역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내가 번역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효율 따라 조정이 된다. (#1)

학부생들은 정말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 통대생들이 들었을 때는 ‘아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과제를 주고 어떻게 해결할지 자기네가 찾으라고 해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터러시라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텍스트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5)

리서치를 맨땅에 헤딩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올려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6)

그걸 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의 본질적인 번역 능력 함양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소중한 시간을 또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건데. (#7)

우리보다 애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건 학생이 개인적으로 할 영역이

지 통대에서 다룰 영역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과제 시 기계 번역 사용 같은 윤리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 정도 주는 게 맞지 않나 (#8)

#### 4.2.4 AI 시대 번역 능력과 번역 교육의 목표

자신이 생각하는 번역 능력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정확성’과 ‘가독성’ 높은 번역문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많았고(#1, #2, #3, #7), ‘이슈스파팅(issue spotting), 즉 그냥 이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한번 리서치해야 된다는 약간 동물적인 감’(#4),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처음 본 분야, 처음 본 어려운 내용도 충분히 리서치해서 번역해낼 수 있는 능력’(#5), ‘이해 능력, 핵심 잡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종합적 판단력,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6), ‘최종 소비하는 독자든 실무자든 다양한 상황에서 병렬 텍스트와 다르지 않은 번역물을 생산하는 능력, 나라 간 문화 간 상이한 점을 극복하고 언어, 사회, 역사 등 차이를 다 통합해 결과물로 내기까지 모든 과정이 번역 능력’(#8) 등 다양했다.

기존 번역 능력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어 능력, 언어 외적 능력, 도구적 능력만 다루기에도 벅차고 나머지는 시간 관리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필요 시 언급하는 정도라고 답했으며(#1, #2, #3, #4, #8), 비슷한 이유에서 실용성이 없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5, #7).

번역 교육의 목표에는 실무 지향적인 통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답변들이 많았다. ‘번역이라는 직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1), ‘전문 지식과 번역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2, #3),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품질의 번역을 (기계 아닌) 손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5), ‘본인만의 번역에 대한 기준을 세워 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6), ‘실무 교육기관이니 어쨌든 취업 잘하고 돈 잘 벌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7), ‘어떤 분야 텍스트를 맡기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번역사를 양성하는 것’(#8) 등이었다.

현재 번역 수업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는 질문에는 원문 분석(#1, #4, #7, #8), 사고력(#2, #4), 도메인 지식(#3), 번역브리프와 레지스터, 전체적인 흐름(#5), 자신만의 퀄리티 기준을 만드는 것(#6), 창의력(#8) 등을 꼽았다.

#### 4.2.5 통대 번역 교육에 필요한 변화

향후 통대 번역 교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기본기’였다. 번역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MTPE와 MT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여전히 번역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어요, (포스트)에디팅도 잘하려면. 번역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에디팅을 하겠어요? (#1)

예를 들어 음대인데 기본적인 음정도 안 되는데 요즘은 누구의 작곡가의 노래를 하는 게 트렌드라더라, 그거를 집중적으로 배워보자? 아니 중요한 건 음정을 잘 잡고, 기본적인 음계를 배워야 되고, 지금 그게 안 되는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를 거는 같은데 1학년, 처음 전문 번역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일단 기본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3)

저희가 첨단을 걷는 교육이 아니었고 가장 기본적인 걸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유효하지 않나... 코어 스킬(core skills)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커런트(current)하게 바뀌는 부분, 번역 교육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진로나 스킬셋(skill set) 등은 오히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니 특강 레벨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딱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니까요. (#6)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중에 커리어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고 ... 학생들에게도 나이 제한이 있으니 다양한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2)

통대 졸업하고 통번역하는 걸 마치 대학 졸업해서 공채 들어가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구조화된 루트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파이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프리랜서는 원래 모험적이잖아요. 다양하게 시도도 해 봐야 하고 단순히 일을 따는 거 말고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러면 커리어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하게 대처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6)

## 5. 논의 및 결론

분석 결과는 새로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혼재해 있던 다양한 관점들을 확인한 것에 가깝지만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번역 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간 번역 대 MT의 이분법적 사고는 여전히 뿌리 깊었고, 학생마다 번역 실력이 다르듯이 교수자들 간 MT 리터러시에도 차이가 작지 않았다. MT 리터러시가 뛰어나고 되묻는 교수자도 있었고 API 개발 비용이 낮아져 이제는 100~200만원이면 트레이닝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교수자도 있었다. 번역의 기본기가 우선이라는 대원칙에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CAT에서 일일이 번역메모리를 쌓는 것만 아는 교수자와 개인적으로 확보한 원문과 번역문들을 GPT에 맞춤형으로 트레이닝시켜 활용할 수 있음을 아는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MT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들보다 오히려 디지털 이주민인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적절한 듯하다.

둘째, 실무 현장의 변화가 교육 현장에 던지는 함의다. ‘수요자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져 웬만한 퀄리티 아니고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소리를 듣기 힘들어졌다’,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공통된 의견은 결국 시장의 양극화를 암시하지만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높아지고 퀄리티는 오히려 중향 평준화되어가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프리미엄 시장을 목표로 하는 통대 교육에서는 특히 경계해야 할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챗GPT가 웬만한 원어민 감수자보다 더 유용한 보조 도구로 부상하고 있고 번역도 결국 최종 결과물의 품질로 평가받는 것인 만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증강 번역’의 관점에서 도구적 역량을 높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 똑같은 구글로 리서치를 해도 학생마다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챗GPT 같은 기술 활용 역량에도 개인차가 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연구와 현장에 간극이 존재했다. 학문적으로는 MTPE 능력이 번역 능력과 구분되지만(Nitzke et al., 2019) 정작



현장의 교수자들은 이 구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번역 능력이 부족하면 MTPE든 감수든 어불성설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챗GPT 같은 AI 번역이 등장하면서 양상은 더 복잡해졌다.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제는 참고용 초벌이든 리서치든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 번역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동안 사전과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한 인간 번역 대 구글이나 파파고를 위시한 NMT 기반 MTPE가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인간 번역 자리를 챗GPT 등 AI와 협업하는 인간 번역이 대체해 또 다른 대립구도를 형성해가는 듯하다. 하지만 그 구분선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 대 후자의 가치 평가는 결국 비전문가인 고객/시장이 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최종사용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신뢰할 만한 공인 번역 평가 기준 마련은 번역학의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또한 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번역 교육 연구도 단순히 학제에 따른 학부와 통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같은 석사라도 통대마다, 학생마다 격차가 큰 만큼 학제뿐 아니라 수준별로 세분화, 다양화한다면 지금처럼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능력 모델 또한 연구와 현장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교수자들은 번역 능력 모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현실성이나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년 간 언어 능력과 언어 외적 능력, 도구적 능력을 훈련하기만도 벅차다고 입을 모았다. 나머지 능력의 가치와 유효성에 대한 시각은 저마다 달랐으며 ‘부수적인 능력으로서 갖추면 좋은 정도’라는 의견부터 ‘너무 추상적이고 파편적이다’, ‘실제 현업에서 이런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어쩌라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장과 괴리가 있는 이론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번역학은 태생적으로 실무와 불가분의 실용성을 띤 학문이지만 학문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 깊이와 실무에의 유용성이 정비례 관계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넷째, MT 리터러시와 관련해 윤리뿐 아니라 번역사의 권리 의식도 고민해 볼 문제다. ‘퀄리티에 목을 매는 고객은 번역사 풀을 확보하는 게 힘들어서 MTPE여도 무모하게 요율을 깎지 못하더라. 하지만 번역사의 이탈 가능

성이 없다면 무섭게 내려 쫓을 것’, ‘을도 아닌 병, 정일 때도 많은데 자기 권리도 못 찾는 힘 없는 사람한테 무슨 윤리 잣대를 적용하느냐’ 등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 못지 않게 번역사의 권리 의식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이 점에서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같은 번역사 권익 보호 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관련 연구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실무 현장에서 디지털 원주민인 현 학생들과 디지털 이주민인 선배 실무자가 함께 일하면서 잠재적 마찰이나 갈등을 겪을 가능성과 예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현 실무자인 교수자와 예비 실무자인 학생들 간에 AI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역량에서 단순한 세대차 이상의 간극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정 학교, 소수의 특정 언어 교수자들의 관점인데다 최고 요율을 적용받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활동 중인 번역사들이라 시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같은 석사과정이라고 해도 다른 통대는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영어 이외 다른 언어의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인간 번역을 대변하는 시각으로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번역학 연구에서 주변부에 머무르기 쉬웠던 프리미엄 시장 실무자의 현실적인 시각을 알아보고 이론적 지식 없이 강의와 실무를 병행하는 교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만큼 향후 통대 커리큘럼이나 번역 수업 운영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연구 범위를 고려해 교수자 관점만 다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수준별 학습자 및 교수자 관점에서 번역 교육의 현재를 훑어볼 수 있다면 AI 시대 번역 교육의 좌표를 점검하고 더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수정. (2015). 학부번역교육에서 번역능력 적용에 관한 연구 — 학부교수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87-113.
- 곽중철, 한승희. (2018). 포스트에디팅 측정지표를 통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

- 화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25.
- 김순미. (2021). 번역 교육 지원 도구로서 기계번역(MT) 활용 — 한영번역 포스트에디팅(MTPE) 수행에 대한 학습자 태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51-80.
-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업체(LSP)간 산학협력연구: ‘포스트에디팅 생산성’과 ‘기계번역 엔진 성능 비교. 번역학연구, 20(1), 41-76.
- 김자경. (2022). 한영 포스트에디팅에서의 노력 탐색 — 시간, 기술적노력, 검색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6(2), 1-24.
- 김주완. (2019. 4. 23.). ‘국민 번역 서비스’된 네이버 파파고... 구글 제치고 月사용자 1000만 돌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2355931>
- 김혜림. (2024). 중한 기계번역 오류변화와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2021년-2023년 학부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8(2), 1-26.
-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마승혜, 성승은. (2019). 다단계 기계번역을 활용한 비전문가 번역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학부 실습 과정 및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4), 83-113.
- 박건영. (2021). 정보성 텍스트의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 — 신경망 기계번역(NMT)을 사용한 뉴스 기사문 번역의 사례. 번역학연구, 22(1), 109-137.
- 박수정, 최은실. (2023).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 고찰. 번역학연구, 24(2), 131-160.
- 송연석. (2020). 온라인 통번역교육에 대한 교수자 인식 — 통번역대학원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21(4), 63-86.
- 신지선. (2024). 번역교육에서 챗GPT의 활용 방안 탐구. 번역학연구, 25(2), 39-67.
- 윤동지. (2017. 2. 21.). ‘인간 vs AI’ 번역대결서 인간 압승...“AI, 문학번역 취

- 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1160600017>
-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 홍승연. (2018).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번역학연구*, 19(5), 43-76.
-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선우, 이상빈. (2021) 학부번역전공자의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품질 비교. *T&I review*, 11(2), 101-123.
- 이선화. (2023). 챗GPT를 적용한 번역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351-379.
- 이이형. (2023). 챗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 — 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85, 153-176.
- 이영훈. (2024). AI시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기계번역 문해력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교육을 위한 제안.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4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33-49.
- 이주리에. (2019). 한일 헤드라인 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고찰. *통역과 번역*, 21(2), 119-144.
- 이주리에. (2021). 포스트에디팅의 번역사 수용에 관한 예비연구 — 한일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3), 109-140.
- 이준호. (2018).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과 인간번역의 차이 연구. *통역과 번역*, 20(1), 73-96.
- 이준호. (2021). 영한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에 대한 고찰 — 시간적 노력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2), 55-83.
- 이준호, 김순미. (2022) 풀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고찰 — 풀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5), 119-146.
- 이지민. (2023) 통번역대학원 번역 전공 학습자의 기계번역 활용 양상 및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번역학연구*, 24(3), 249-283.
- 이지은. (2016). 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통번역 교수자들의 인식 조사 연구. *번역학연구*, 17(1), 81-106.

- 이지은, 송연석. (2022). 전문대학원 통번역학 박사과정생 연구 능력과 논문 지도에 대한 교수자 면접조사. *번역학연구*, 23(2), 225-248.
- 이지은, 최효은. (2024).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및 포스트에디팅의 오류 비교: 한영 법률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1), 11-39.
- 이창수. (2024). 챗GPT, 파과고, 인간 번역가 간의 한영 문학번역 차이점 연구. *번역학연구*, 25(2), 11-37.
- 이향. (2006). 번역능력이란 무엇인가? 통역과 번역, 8(1), 177-193.
- 이해인. (2023. 11. 27.). 챗GPT 1년, 일상이 되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11/27/L66VGQNK4VFLFB4TSB5RBVOOBY/](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11/27/L66VGQNK4VFLFB4TSB5RBVOOBY/)
- 정재혁. (2023). 영한 포스트에디팅과 인간 번역의 정확성 비교 — 정확성 오류 검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7(3), 177-201.
- 정재혁. (2024). 텍스트 유형에 따른 영한 포스트에디팅에서의 오류 수정 양상 분석 및 고찰. *통번역학연구*, 28(1), 123-150.
- 지윤주, 이상빈, 이선우. (2023).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7(3), 203-226.
- 최지영. (2024). 학부 유학생의 온라인 기계번역 활용 양상 및 교수자의 인식 — 한국어 작문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5(1), 171-205.
- 한승희, 강동희. (2022).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기계번역 사후편집본과 인간번역 감수본의 품질평가 비교 연구 — 한-노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6(1), 195-219.
- 한현희. (2019). 노한 기계번역의 프리에디팅 및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안. *노어노문학*, 31(4), 65-96.
- Alm, A., & Watanabe, Y. (2022). Online machine translation for L2 writing across languages and proficiency levels. *Austral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5(3), 135-157.
- Bell, 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 Bowker, L. (2020).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instruc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students and business English instructors.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25(1), 25-43.

- Bowker, L., & Buitrago-Ciro, J. (2019). *Machine translation and global research: Towards improved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in the scholarly community*. Emerald Publishing.
- Briva-Iglesias, V., O'Brien, S., & Cowan, B. R. (2023). The impact of traditional and interactive post-editing on machine translation user experience, quality, and productivity. *Translation, Cognition & Behavior*, 6(1), 60-86.
- EMT Board. (2022). *European Master's in Translation competence framework 2022*. European Commission. Retrieved August, 5, 2024,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2-11/emt\\_competence\\_fw\\_2022\\_en.pdf](https://commission.europa.eu/system/files/2022-11/emt_competence_fw_2022_en.pdf).
- Girletti, S., & Lefer, M. (2024). Introducing MTPE pricing in translator training: A concrete proposal for MT instructo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8(1), 1-18.
- Göpferich, S. (2009).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its acquisition: The longitudinal study TransComp. In S. Göpferich, A. L. Jakobsen, & I. M. Mees (Eds.), *Behind the Mind: Methods, Models and Results in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pp. 11-37). Samfundslitteratur.
- Groves, M., & Mundt, K. (2021). A ghostwriter in the machine? Attitudes of academic staff towards machine translation use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50, 1-11.
- Harris, B. (1977). The importance of natural translation. *Working Papers in Bilingualism*, 12, 96-114.
- Krüger, R. (2022). Integrating professional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and data literacy. *Lebende Sprachen*, 67(2), 247-282.
- Krüger, R., & Hackenbuchner, J. (2022). Outline of a didactic framework for combined data literacy and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teaching.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Teaching and Learning E*(9), 375-432.
- Nitzke, J., Hansen-Schirra, S., & Canfora, C. (2019). Risk management and post-editing competence.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1,

239-259.

- Nord, C. (1992). Text analysis in translator training. In C. Dollerup & A. Lin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1* (pp.39-48). Amsterdam: John Benjamins.
- O'Brien, S. (2024). Human-centered augmented translation: Against antagonistic dualisms. *Perspectives*, 32(3), 391-406.
- O'Brien, S., & Ehrensberger-Dow, M. (2020). MT literacy — A cognitive view. *Translation, Cognition & Behavior*, 3(2), 145-164.
-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In F. Alves (Ed.), *Triangulating Translation: Perspectives in Process Oriented Research* (pp. 43-66). John Benjamins.
- Ragni, V., & Vieira, L. N. (2022). What has changed with neural machine translation? A critical review of human factors. *Perspectives*, 30(1), 137-158.
- Ramos, F. P. (2024). Legal and institutional translator competence: Developments and training implication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8(2), 139-147.
- Riondel, A. (2024). How to teach revision: Tips from an interview study.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8(3), 507-522.
- Robert, I. S., Remael, A., & Ureel, J. J. (2017).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1), 1-19.
- Robert, I. S., Schrijver, I., & Ureel, J. J. (2024). Measuring translation revision competence and post-editing competence in translation trainees: Methodological issues. *Perspectives*, 32(2), 177-191.
- Rozmysłowicz, T. (2024). The politics of machine translation. Reprogramming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32(3), 493-507.
- Shneiderman, B. (2020).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Three fresh ideas. *AIS Transactions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12(3), 109-124.
- Shreve, G. M. (2006). The deliberate practice: translation and expertis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7-42.

## **Translator training in the AI era: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English graduate-level translator trainers**

**Yonsuk Song** (yonsuk@gmail.com)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bstract**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has introduced new challenges in translator train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eight translator traine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es experienced by graduate-level translator trainers in the AI era, how they are adapting to these developments, and their perspectives on translation competence, trainees' use of AI for their translation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ranslator training. The study first examines major translation competence models along with their relevance to graduate-level translator training and reviews recent trends in research on neural machine translation-based post-editing. It then discusses the latest trends in machine translation research, questioning the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Additionally,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s of augmented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exploring their possible educational applications. The study finds that the trainers were opposed to trainees' use of AI in translation on the grounds that it will hinder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ompetence. They were also found to be skeptical about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competence models, as well as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to graduate-level translator train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the trainers themselves, rather than the trainees, who need education on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view findings for graduate-level translator training and translation studies.

**Keywords:** Translator training; translation competence; AI translation; post-editing; machine translation literacy

**키워드:** 번역교육, 번역 능력, AI 번역, 포스트에디팅, 기계번역 리터러시



송연석(<https://orcid.org/0000-0002-3312-8655>)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yonsuk@gmail.com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0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